



**박근혜 게이트 두 달,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박근혜'들은 여전히 활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니, 벌써 두 달이 지났다. 10월 24일 종편 JTBC가 최순실 PC 관련 보도를 한 후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국정농단 실체가 연이어 폭로되었고, 800만 가까운 시민이 8차례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으로 시작해 "주권자인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나라다"라는 역사적 선언으로 발전한 촛불집회는 국회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 과업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직무정지 된 박근혜가 국민 시야에서 사라진 사이, 박근혜 '아바타'로 불리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행세를 하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공고히 한다. 박근혜가 만든 적폐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있다.

박근혜를 만든 새누리당은 또 어떤가? 남은 자들은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에 대한 '의리'를 외치며 조폭 뺨치는 단합을 자랑하고 있고, 떠나겠다는 자들은 갑자기 박근혜 선봉장 흉내를 내며 '보수신당'을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처벌은 고사하고 반성조차 없다.

국정농단 배후로 지탄 받는 재벌 대기업은 이 와중에도 청년을 우롱한다. 50대 재벌 이랜드그룹은 조직적으로 4만 명의 알바생 임금을 악착같이 떼어 먹어 10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정

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금수저 정유라 입시비리로 이 사단이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나라 금수저들의 반사회적 행동은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곳곳에서 박근혜 부역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반면, 노동자와 서민은 또 다른 '박근혜'들에 의해 오늘도 굴종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끌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주권자의 권리를 찾아 이 촛불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 두 달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부역자들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 외치고, 부역자들을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주권자의 첫 번째 권리이다.

**헌법재판관 9명에게
국민주권을 맡길 수 있나?
주권자는 다음 대통령만 기다려야 하나?**

박근혜 탄핵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다. 재판관들이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둔다면, 내년 여름이나 되어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한두 명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면, 탄핵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주권자 위에 국회가 있고, 국회 위에 재판관이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선출된 대표자를 주권자가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의 두 번째 권리이다.

그런데 대표자를 소환할 권리는 아직

반쪽 주권일 뿐이다. 언론의 관심이 차기 대선 후보 동향으로 바뀌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국민이 기존 권력을 끌어내려도 우리 주권자들은 결국 새 권력을 세우는 일에는 단지 '한 표'로 간주될 뿐이다. 통치는 언제나 정치, 사법, 경제 엘리트의 몫이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어차피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고 여기는 이유다. 김기춘, 우병우 같은 엘리트 검찰 출신들이 국민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오만하게 국민을 깔보는 이유고, 또 기업인과 정부 경제 관료들이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 경제를 보살피자"고 으박지를 수 있는 근거다.

결국 주권자들이 명령을 받고 굴종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자가 되려면, 통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우리가 명령할 근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국가 일에서 참여 의견을 내고 명령하고, 부당한 것은 중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거기에 바탕해 더 많은 역량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

내 삶과 내가 사는 나라의 실질적 주권자가 되기 위해, 통치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 주권자의 세 번째 권리다. 주권자는 주권자이기 위해 지식을 얻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래야 우리의 굴종을 깰 수 있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우리 주변 박근혜를 몰아내자!
시민의 제대로 된 권리들을 쟁취하자!**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이 되는 출발점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이다. 일터에서 모욕을 당하고, 임금을 체불당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해고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내 권리를 외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일터에서 우리가 주권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부당함을 함께 겪는 사람들이 뭉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의 네 번째 권리로, 스스로를 조직할 권리, 노조할 권리이다.

그리고 주권자로서 명령하는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과 다르다. 주권자로서 우리의 출발점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주권자의 마지막 권리는 차이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이다. 광장의 촛불이 여성혐오나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자제하자며 규범으로 만든 차이를 존중받을 권리는 우리 모두 주권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최순실에 대해,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게, 재벌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민주를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우리를 굴종하는 개돼지 취급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키려는 촛불의 외침은 '민주주의' 그 자체다. 이 권리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싸우지 않고, 서로서로 힘을 모아가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없더라도 박근혜 체제는 계속되고, 우리는 또 다시 명령받는 지위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만들고자 하는 "내 나라"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나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다. ●



박근혜 특검은 08년 삼성 특검과 다를 수 있을까?

면죄부 받은 삼성이 국정농단 주역이 된 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 08년 삼성 특검에서 경영권 승계 비자금 면죄부 받은 삼성 관계자가 다시 국정농단 배후로 등장
- 당시 특검이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날 국정농단 달라질 수도 있었어

2008년 '삼성 특검'은 이견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4조원대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배임, 횡령, 탈세 등의 불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특검은 이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이견희와 경영진의 죄를 대부분 무죄 또는 최소형량으로 만들었다.

이견희, 이재용 부자의 뒤집기 역전승이었고 국민과 헌법의 패배였다. 비자금 의혹을 처벌하자고 만든 특검이

결과적으로 비자금을 합법화해줬다.

그런데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니, 삼성의 국민기만, 헌정유린은 삼성 특검 당시 인물들을 다시 역사의 무대로 불러냈다.

이번 희극의 주인공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의 몸통 중 한 명이었던 현명관 전 삼성 비서실장과 비자금 조성의 수혜자였던 이재용 부회장이자. 현명관씨는 현 마사회 회장이자 이른바 박근혜 원로측근모임 '7인회'의 한 명으로 삼성과 최순실을 연결시켜준 핵심

고리로 의심받고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조준용 특검이 삼성 비자금 문제를 단호하게 처벌했다면 오늘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당시 이견희, 현명관씨와 같은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되고 횡령, 배임, 탈세한 금액이 환수됐다면, 이재용씨가 꿈수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미련을 버렸을지 모른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건도 당시 범죄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이재용씨가 불법 경영 승계에 대해 미련을 버렸다면, 오늘의 최순실 게이트도 그 정도가 덜 했을지 모른다. 최순실씨가 마음껏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건 삼성 같은 거대 물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연한 나비 효과가 아니다. 한국에서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는 언제나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박근혜 게이트 특검이 정식 수사를 개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삼성을 특별히 더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특검이 역사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용과 관련자들 모두를 구속 처벌하지 않으면, 10년 후 박근혜 특검은 다시 삼성 특검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반복된 불행을 만든 주체로 기록될 것이다. ●

우리 일터의 '박근혜 최순실'들을 몰아냅시다!

일터의 민주주의를 위해선 노동조합이 필요해 ...

"이랜드파크는 창의적으로 알바생의 최저임금을 등쳐먹었다. 노동시간을 15분 단위로 잘라내고 28분에 퇴근한 사람에게는 15분까지의 월급만 주고 13분어치를 떼먹었다. 원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고 월급을 깎고, 한밤중에 일시키고 야간수당도 안줬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한 식당들에서 발생한 일이다. ... 이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는 알바생을 포함해 무려 4만 4천여 명이고 피해액은 83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 12.22 일터의 박근혜에 분노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온 국민이 재벌에 분노하는 현 상황에서 이 모양이다. 50대 재벌 안에 드는 이랜드가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떼어먹다 당국에 걸렸다. 자그마치 84억 원이다. 이랜드는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의 소재가 된 회사로도 유명하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2007년 여성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노조를 탄압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랜드는 10년이 지나도 결국 그대로였다.

"회사도 개돼지 취급, 나라도 개돼

지 취급, 우리한테는 온갖 갑질을 했던 대기업들이 최순실, 정유라 앞에서는 기어 다니고... 이게 나라입니까?" 구로의 한 노동자가 촛불집회에서 한 이야기다.

우리는 촛불집회에서 주권자의 명령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지만 정작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작업장에서는 주권자가 아니다.

더이상 굴종당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일터의 주권자가 되기 위해선, 일터의 민주주의를 위해선 우리가 뭉치고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노조할 권리'가 필요하다.

광장의 촛불은 살기 좋은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랜드파크 사장,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수많은 사장님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그 주역이다. 우리의 일터를 농단하고, 근로기준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이 바로 일터의 박근혜요 최순실이다.

우리 일터의 박근혜와 최순실을 몰아내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라!

<p>금수저흙수저의 나라 부익부빈익빈 체제</p> <p>"니 부모 탓 해, 돈도 실력이야!"</p> 	<p>검찰·국정원의 나라 공안 통치 체제</p> <p>"진실은 조작, 반항은 탄압!"</p> 	<p>슈퍼갑들의 나라 재벌 체제</p> <p>"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p> 	<p>북한 탓만 하는 나라 평화 위협 체제</p> <p>"북한 탓에 일본과 동맹..."</p> 	<p>개돼지의 나라 입막음·굴종 체제</p> <p>"국민들은 금방 잊어요"</p> 
--	--	--	---	--